

퀀틴전시 플랜

금리, 유가 부담에 AI 속도 조절론 가세. KOSPI 3 일 연속 하락

FICC 리서치부

이경민 / Strategist

kyoungmin.lee@daishin.com



[Key Point] 기정사실화된 9월 금리인상. 국제 유가 상승과 AI 속도조절론으로 위축된 투자심리

- 미국 증시 선방에도 불구하고 KOSPI는 3.14% 급락 출발, 오전 10시대 중반 6,654.82(-3.69%)까지 밀리기도 함. 지난 주말 미국 8월 근원 CPI가 전월대비 0.3% 상승하며 예상치(0.2%) 상회. 이는 9월 FOMC 인상 확률이 86~87%에 달할 정도로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5% 터치
- 호르무즈 통항 회의가 연기. 사우디 송유관 가동 중단으로 인해 브렌트유 108달러 재돌파한데 이어 AI 개발 속도조절 발언으로 반도체 투자심리 급랭, 외국인 4거래일 연속 순매도 & 프로그램 매물 출회
- 오늘 급락의 핵심 팩터는 AI 개발 속도 조절 논란. 9월 6일 야쿠프 파호츠키 오픈AI 최고과학자의 에세이 ("기계 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아무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에 이어, 12일(현지시간)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롭 CEO가 블로그에서 "AI 모델 개선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추가 안전장치 도입을 밝힘. 일론 머스크는 X에 "다리오가 옳다", 샘 올트먼은 "프런티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동조했고 데미스 허사비스도 동의.

[Issue 1] KOSPI 6,600선 지지력 테스트. 호르무즈 회의 재개 및 9월 FOMC 점도표 확인

- 그러나 이번 논의가 "AI 개발 중단이 아니라 개발 속도와 안전성 검증을 조절하자는 성격"이라며 투자 사이클 둔화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 즉, 투자 속도 조절이 아닌 개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윤리를 비롯한 보안 시스템 강화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
- 게다가 HBM은 "완판(sold-out)" 상태이고 SK하이닉스·삼성전자가 시장의 83%를 점유한다는 점에서 "실적이 아닌 심리 주도 하락"이라고 판단. 개발 속도조절이 "기존 설비의 수익화 단계로 전환할 시간"을 주며 반도체·전력·데이터센터 투자 자체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글로벌X·올스프링·삭스마켓츠의 코멘트도 저가매수 논리를 뒷받침. 오전 장을 지나면서 낙폭을 절반 가까이 되돌리며 양봉 전환
- KOSPI 6,600선 지지력 확보시 분위기 반전 가능성 유효. 핵심 변수로는 1) 호르무즈 회의 재개 여부: 오만 측이 "합의 도출을 위한" 연기라고 밝힌 만큼 재개 일정이 나오면 유가 되돌림 → 시장 안도 요인 2) 9월 FOMC(한국시간 17일 새벽): 25bp 인상은 86%대로 반영. 점도표와 워시 의장 발언, 30년물 반응이 관건. 금리인상 선반영으로 26년, 27년 28년 점도표 수준과 FOMC 이후 10년물 5% 재돌파 여부가 관건

[Issue 2] 반도체 위주의 전반적 하락. 방산, 금융 업종 차별적인 반등

-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및 지분가치주인 삼성물산, SK스퀘어 위주 약세. 원전 업종 또한 차익실현 매물 출회하며 약세. 반면 방산, 금융 업종 실적 기대감에 강세
-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5.2%),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4.4%), 한화시스템(+5.8)
- 금융: 우리금융지주(+5.0%), 하나금융지주(+2.2%), KB금융(+2.1%) 등 강세
- 반도체: 삼성전자(-4.1%), SK하이닉스(-6.4%), 삼성물산(-2.3%), SK스퀘어(-8.2%)
- 원전: 두산에너지(-4.2%), 한전기술(-9.1%), 현대건설(-5.0%), 대우건설(-5.7%)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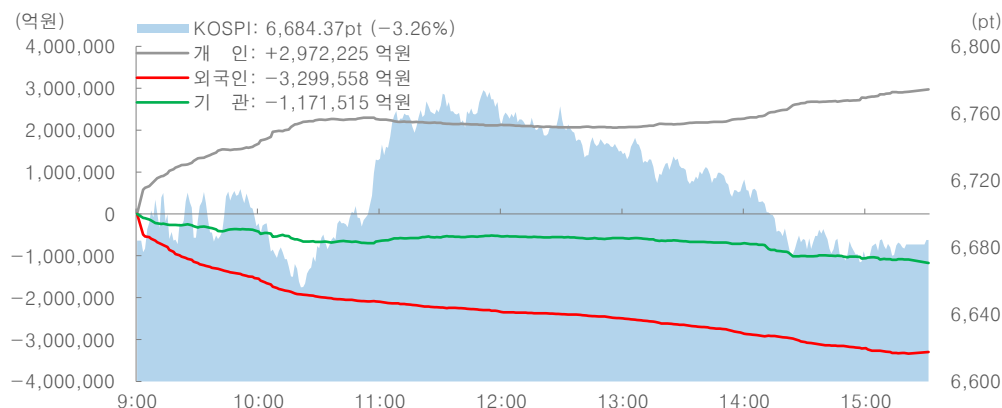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장**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증시 수익률 (%)

지수명	대비율
다우산업	+0.98%
나스닥 종합	+0.96%
유럽 STOXX50	+0.90%
S&P500	+0.86%
홍콩恒生지수	+0.36%
중국상해종합지수	+0.16%
대만가권	-0.54%
일본니케이225	-1.07%
KOSDAQ	-1.69%
KOSPI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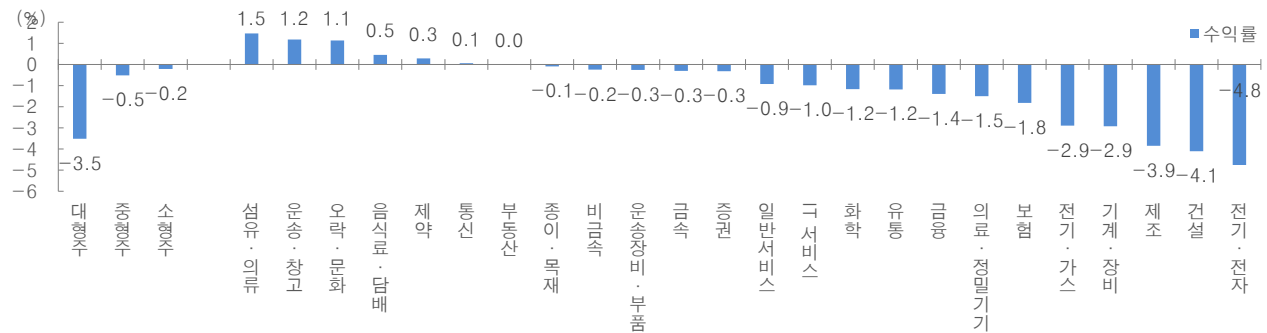
주: 아시아 증시 마감 전 지수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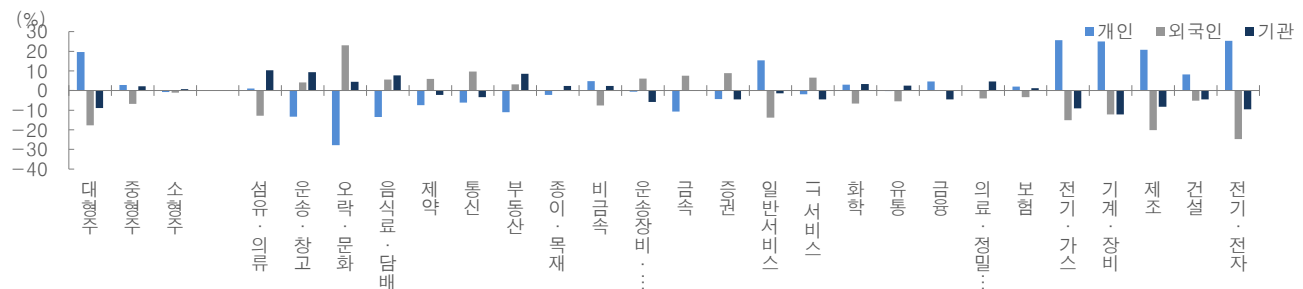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업종별 수익률



업종별 순매수 상대강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순매수 상대강도 = 주체별 순매수금액 / 20 일평균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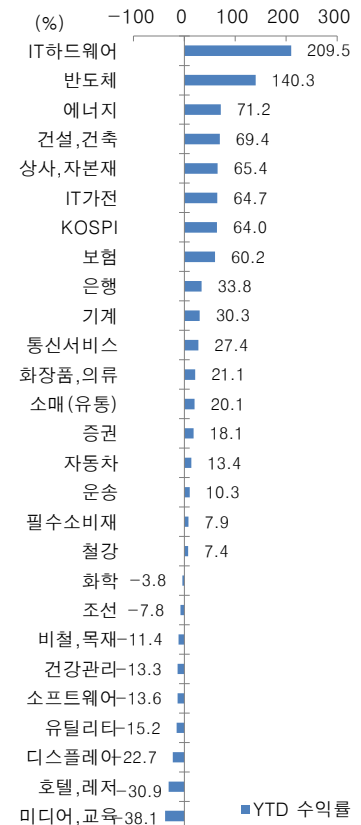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전일증가 (p)	1W	1M	3M	6M	12M	YTD
KOSPI	6,910	3.3	8.9	-11.0	23.2	106.6	64.0
에너지	8,157	1.2	9.9	12.2	26.0	88.4	71.2
화학	4,303	-0.1	0.4	-13.4	-10.9	10.5	-3.8
비철·목재	6,264	-3.3	-3.4	1.6	-26.4	8.9	-11.4
철강	2,332	0.0	3.5	-5.2	-5.4	11.8	7.4
건설·건축	2,576	10.3	11.0	11.1	16.7	64.9	69.4
기계	11,675	7.6	6.4	-9.8	-0.3	51.1	30.3
조선	8,039	4.3	-1.4	-13.0	-20.7	-8.9	-7.8
상사·자본재	5,744	1.8	1.0	-8.1	16.4	95.8	65.4
운송	1,944	-1.7	3.7	11.7	1.2	3.9	10.3
자동차	13,444	-0.5	-7.6	-27.5	-19.8	38.4	13.4
화장품·의료	5,937	-3.6	-3.0	3.7	10.6	14.3	21.1
호텔·레저	1,596	-1.3	-1.2	-17.0	-25.2	-30.0	-30.9
미디어·교육	488	-2.1	-3.8	-14.4	-39.6	-33.5	-38.1
소매(유통)	2,420	0.4	-4.8	-30.6	3.3	29.7	20.1
필수소비재	7,352	-2.8	-2.8	-2.4	4.7	2.8	7.9
건강관리	9,175	-3.8	-11.5	4.6	-15.1	4.7	-13.3
은행	3,582	2.9	6.3	14.4	12.6	42.9	33.8
증권	2,652	-1.0	-2.8	-15.1	-26.5	19.2	18.1
보험	16,639	2.5	8.7	-1.1	29.6	60.5	60.2
소프트웨어	6,193	-3.9	-7.7	-11.6	-9.1	-13.9	-13.6
IT하드웨어	4,241	-0.3	8.5	-26.7	136.3	319.6	209.5
반도체	49,924	5.3	16.2	-13.4	55.8	330.5	140.3
IT가전	3,052	-0.2	11.9	-2.7	29.9	96.1	64.7
디스플레이	545	-2.1	-8.1	-28.0	-24.7	-23.4	-22.7
통신서비스	468	-1.7	2.0	-9.2	3.0	25.6	27.4
유틸리티	1,151	8.2	3.3	0.0	-22.1	-2.0	-15.2

기준일: 2026.09.14 /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